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 가르쳐 주세요

(제3회)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정박철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됩니다.



## 우리는 모두 같다.



지난 5월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학교 성교육을 위한 회의가 있  
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르  
쳐야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벽동부터 커다란 견해의  
차이가 생겼다. 우선 급하니까 성  
교육을 위한 교과내역을 논의하고  
그 타당성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몇몇교육정책자와 일  
선 실무 교장님의 의견은 달랐다. 당  
연히 그 교과내역이 결정되어야 하  
는데는 이의가 없을뿐 아니라 찬성  
을 원칙적으로 갖지만 왜 이런 성교  
육이 필요한 것인지 그 이유와 철학  
이 검토되어 명시되지 않으면 안되겠  
다는거였다. 우리가 무작정 외국의  
성교육 교재를 놓고 이것 저것 좋다  
고 생각되는 것을 발취하여 마치  
꼭-이일을 만들어 놓으면 일견 보기에  
따라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 사고와 어떻게 관계되  
며 더 나아가 한국적 미래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고등학교 성교육에 앞서 중학교  
와 국민학교에서의 성교육 실태가 어  
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에 대한 대책

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전개되지 않  
으면 안된다는 이유로해서 더욱 강조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실까요? 왜 성교육이 필  
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에 성적 개체로서의 인간(성적  
인간)과 성적언어를 통하여 무엇인가  
를 다져가고 있으리라 믿는다. 물론  
필자와 주장이 절대적이란 점에서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기회에 어떤 결론을 어머니 여려  
분들이 자신들의 자녀교육을 위해  
필요한대로 결정하는데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데 있음을 강조할 뿐이다  
따라서 함께 생각하고 검토하는 것  
이 좋으리라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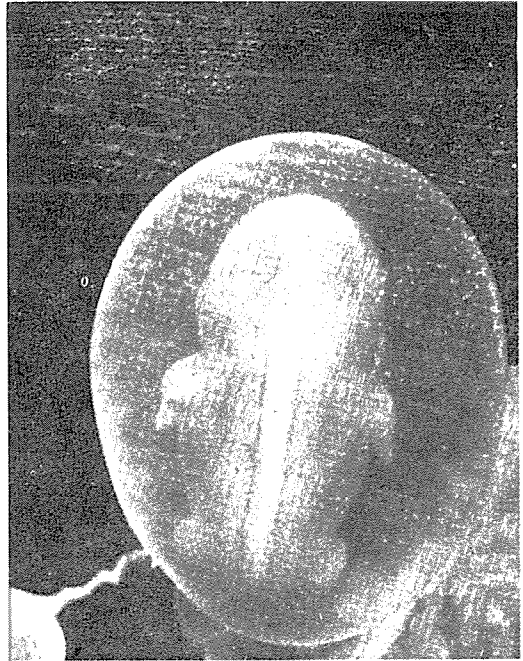
결과적인 얘기이지만 성교육이 필  
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되지 못한  
경우 그들이 훗날 최소한 다음과 같  
은 세가지 위험한 사태에 빠져들 가  
능성이 생긴다.

첫째, 자기학대의 태도.

둘째, 정신신체적 각종 질환.

셋째, 성기능장애 및 성도착증.

이미 성적언어에서 밝힌대로 교육  
부재 또는 거부현상에 따라 성에 관  
한 잃어버린 언어는 성자체를 위험  
시하거나 죄악시하게하는 나머지 훗  
날 성인이 되어 당연히 발생하게 되  
는 성적 각종 현상들에 당황하게 된  
다. 억제할 수 없는 성적 충동 때문  
에 자위행위가 익혀지게 되고 성적



환상은 금기야 꿈속에서 매우 커다란 불륜이나 금기과괴의 내용으로 터져나온다. 이때 당사자는 「나에게도 이렇듯 나쁜 피가 흐르고있다」라는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갖게되어 자신을 비난하고 확대하는 모습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떳떳한 자기과시를 할 수 없는 외소한 인간이 되고 만다.

성적 충동이 죄의식으로 억제만 되었을때 그것이 신체적 자연스런 리듬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사춘기이후 성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성에 대해 자연스런 이해가 일찌기(국민학교 입학전후)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때문에 그 부작용이 뒤늦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머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것이라 본다. 여러분 중에서나 또는 주변의 많은 어머니들에게서 신체적으로 다양한 증세때문에 고통을 겪고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에선 한결같이 신경성이라면서 환자의 심정을 모르세 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대부분은 소위 정신신체증이라하여 심리적 갈등이 신체적 병을 일으켜 여러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하는 것인데 여기의 심적 갈등에 성적의미가 의외로 많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성적 불만에 비해 성을 금기시하므로 성적 문제를 무시하고 초연하는만큼 사실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인데 그것이 즉 과거의 성교육이 없었던 탓이다.

성기능장애에 이르면 더욱 심각한 양상이 떠오른다. 신랑이 결혼을 하였음에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물론 이른바 고자는 아니다. 병신이 아니라 멀쩡한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허락된 신부 앞에기가죽어 무력해지고 마는 것이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이없는 일이겠는가. 놀랍게도 이런 현상의 상당한 경우가 조기 성교육의 잘못에 의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성을 극도로 은폐하고, 성적 표현을 폐쇄적으로 제한하거나, 그런나머지 근친상간적 욕구가 환상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을때 합법적인 성행위까지도 잠재의식상에 남아있는 근친상간적 성

으로 이해되어 의식적인 태도와는 달리 행동에 재동이 걸려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성교육이 자연스럽게 필요한 시기에 진행되지 못하므로써 생기는 결과들을 뜻한다.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에게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성에 대해 같은 성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성에 지나친 집착을 하고 또 무관심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은 후천적 교육에 의한 것이지 본성적으로는 같다는 것이다. 괴테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의 모든 죄의 경향은 자기에게도 있다.」성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시 성에 관한 별별일이 다 있다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경향은 누구에게도 있다. 다만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맞게 활용하고 쓰이는 방법에서 길 들여지는 것이 어떠했느냐가 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도착중에 이르면 참으로 기막힌 것이 많아진다. 구지 동성간에 성행위만을 고집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린 이만을 상대로하는 성적 행동, 이성의 부착물을 부적같이 끼고돌며 그것으로 성적 만족을 갖는 경우, 상대방을 죽도록 학대하거나 또는 고통을 당하므로써만 기쁨을 갖는 현상, 직접적인 성행위는 못하고 고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그것을 보고

## “ “ “ “ 독자만화



신종직업 (하루방)

서울 종로구 창신 3동 23-402

놀라는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족하는 이른바 변태적 행위들은 한결같이 성적개체로서의 인간됨에 준비가 박탈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확연한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이 논제로 되었을 때 교육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우리 아이는 그럴리가 없다」

모든 부모가 바라는 이 한마디엔 사실 얼마나 큰 공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고서는 자부할 수 없는 것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계속〉